

## 전공의 광장

고신대학 의학부 이비인후과학 교실  
이 강 대

### - 학술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

훌륭한 논문을 쓰기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하며, 실제 논문쓰기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한편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가 혹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내용을 수백 혹은 수천명의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감도 투자시간, 노력에 비례하여 크다고 하겠다.

필자도 논문을 쓰는데 미숙하고, 경험도 일천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의 논문에 대한 개념에 다소간 도움이 될까하여 외국잡지(Annals, Vol. 98, 1989)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1) Abstract 2) Introduction 3) Material and Method 4) Results 5) Discussion 6) Conclusion 7) Summary 등 7개의 명확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부분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서로 내용이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

#### 1. Abstract(초록)

논문의 첫머리의 한 단락으로 몇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며, 논문의 목적, 간략한 시행방법, 연구의 주요점과 결론을 포함하고 그 논문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면 참고문헌이나 이전의 연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 2. Introduction(서론)

서론은 1) 저자가 연구를 하였던 이유에 대한 기술(정립되지 않은 분야라든가 다른 저자들의 자료와 의의있게 다른 점, 기술, 분석 혹은 결과에 있어서의 발전된 점 등)과 2) 저자

의 결과가 문제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왜 독자들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3)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4)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 기술하고 다른 저자의 언적이나 참고문헌을 표기한다.

#### 3. Material and Method(재료 및 방법)

대부분의 저자에서 논문을 시작하기에 가장 수월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분석된 모집단과 그 이유, 연구와 통계학적 목적을 위한 모집단의 표준화, 모집단의 분석방법과 그 정당성 및 모집단의 자료가 기술되어야 하고 자료의 단위도 적절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논문에서는 다른 저자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동물의 종류와 나이, 무게, 자료수집에 사용된 방법 및 기구 등). 얻어진 결과는 논문의 형식이나 요지의 흐름에 따라 여기에 기술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결과부분에서 쓰여진다.

#### 4. Result(결과)

이 부분은 논문의 심장과 같다. 표본수는 의의가 있어야 하고, 대조군도 적절하고 건전하며 'p' value로 각군간의 의의 유무를 판별해야 한다. 적절한 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실험의 실례를 나타낼 때는 화살표, 라벨 등과 간결한 설명을 덧붙인다.

#### 5. Discussion(고찰)

여기에서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재조명하고, 재료 및 방법의 실험적 접근방법의 적합성 여부 그리고 서론에서의 가설을 정량적, 정성적인 결과로서 지지하며 확인한다. 시행되었던 연구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 6. Conclusion(결론)

결론에서는 저자가 증명하였고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한탄락정도로 언급한다. 개념화와 비자료적인 것이 적합하고 또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지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질 수 있다.

#### 7. Summary(요약)

논문의 여러부분 중에서 중요성이 가장 덜한 이 부분은 강력한 마지막 서술이 필요할 때 즉, 논쟁의 분야에서 이전의 연구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든가, 혹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전의 연구에 대한 반박 등에 사용한다.